

헐! 명품 주문해 짜통으로 환불해 돈벌이



▲ 오른쪽이 정품

인터넷 쇼핑몰의 허점을 노려 이득을 챙긴 중국 여성이 붙잡혔다. 이 여성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명품을 구매한 뒤 환불하면서 짜통을 보내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시나일보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타오바오의 고객이 여러 차례 반품한 것으로 추정되는 짜통 제품을 경찰에 신고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에 사는 이 여성은 안 씨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6차례에 걸쳐 구찌 등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짜통 물품으로 바꿔치기 해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수법이 통했던 이유는 '7일 내 이유 없이 전액 환불 가능'이라는 회사의 서비스를 안씨가 악용했기 때문이다. 안씨는 자신은 정품 가방을 챙기고 짜통 가방을 환불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으며 명품 화장품, 명품 의류 또한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안 씨는 한 달에 5,000위안(약 800달러)의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신도 바이푸메이(白富美)라 불리고 싶어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푸메이는 피부가 하얗고 돈많은 집안의 아름다운 여성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식으로 한다면 '엄친딸' 정도가 되겠다.

46년 동안 빅맥 3만 개 먹은 60대 남성

46년간 맥도널드의 대표 햄버거인 '빅맥'을 3만 개 먹은 60대 남성이 화제이다. 주인공은 위스콘신주 중부 폰듀랙에 사는 은퇴한 교도관 도널드 고스키(64) 씨.

고스키 씨는 지난 4일 자택 인근 맥도널드 매장에서 주민들과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애 3만 개째 빅맥을 먹었다. 이 매장은 고스키 씨가 46년 전 18살이던 1972년, 운전면허증 취득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에 단 하나 있던 맥도널드 매장에서 빅맥 9개를 먹은 곳이다.

고스키 씨는 처음 빅맥을 먹은 뒤 365일 만에 1천개 기록을 세웠고, 2016년 8월에는 2만8,788개째를 먹으며 빅맥 소비 기네스 세계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그는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걱정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와, 눈폭풍을 헤치고 차를 몰고 갔더니 맥도널드 매장이 문 닫았을 때 등 며칠을 빼고는 매일 햄버거를 먹었다. 하루 평균 2개씩 빅맥을 먹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오래된 빅맥 포장지와 박스, 영수증 등을 제시했다.



▲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 3만 개 기록 위스콘신주 도널드 고스키 (사진: WISN 트위터 캡처)

그는 청혼도 맥도널드 매장 주차장에 있는 노란색 M자 로고 '골든아치' 아래에서 했다.

맥도널드의 경쟁사인 버거킹의 대표 상품 '와퍼'는 딱 한 번 먹어 봤다고 한다. 고스키 씨는 "누가와 파를 먹으면 5달러를 주겠다고 해서 와퍼를 먹고, 그 돈으로 맥도널드 빅맥을 사 먹었다." 고 말했다.

고스키는 하루 세끼 맥도널드 햄버거만 먹으며 자신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수퍼

사이즈 미>(2005년)에 '빅맥 전문가'로 출연한 적도 있다. 그는 이 영화에서 자신이 빅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내가 먹는 끼니의 약 90%가 빅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식습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최근 건강 검진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으며 혈압도 완벽했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추세로라면 그가 78세가 되는 2023년에 4만개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뇌사로 장기 기증 하루 전 눈뜬 소년

치명적인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소년이 장기 기증 직전 눈을 뜨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6일 USA투데이에 앨라배마주 모바일에 사는 트렌턴 맥킨리(13)는 지난 3월 타고있던 트레일러가 전복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 맥킨리는 친구의 집 마당에서 어린이용 트레일러를 타고 놀고 있었다. 맥킨리는 두 번의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어린 아들을 가슴 속에 묻을 상황이 된 맥킨리 부부는 지난 3월 말 아들의 장기를 5명의 아이들에게 기증



▲ 맥킨리의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올린 병상에 누운 아들의 사진 (사진: 페이스북 캡처)

히 아들이 회복 중에 있으며 건강을 되찾으리라 믿는다." 며 기뻐했다.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이에 장기 기증서에 서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날 아들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자기 트렌턴의 뇌 활동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 그리고 놀랍게도 트렌턴은 자가 호흡을 시작하고 의식을 되찾으며 더듬더듬 말도 하기 시작했다.

이식수술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 날이었다.

엄마 제니퍼는 "정말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아직 받아야 할 수술이 몇 번 더 있지만 서서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www.suhlaw.com
info@suhlaw.com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I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